

맨유 결승 맞대결 '마지막 관문' 첼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



맨유-AC밀란, 첼시-리버풀
운명의 준결승 2차전 잇따라



면 원정 다득점을 우선시하는 대회 규정에 따라 AC밀란에 결승 티켓을 내줘야 한다.

맨유가 UEFA컵을 포함해 50년 역사의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1차전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은 건 네 차례 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가 AC밀란에 상대로였다.

맨유는 AC밀란과 1957~1958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만나 홈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으나 원정 2차전에서 0-4로 대패해 결승 꿈을 접었다.

반면 AC밀란은 1957~1958 시즌을 시작으로 맨유와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따냈다. 최근인 2004~2005 시즌에는 16강에서 1, 2차전 모두 맨유를 1-0으로 제압했다.

다만 양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있는 맨유와 첼시가 5월23일 대회 결승전이 치러질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날 수 있을 지 축구팬의 관심이 더해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가 한치 양보 없이 벌여온 시즌 다관왕 경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3개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맨유와 첼시는 이제 '꿈의 무대'라 불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

첼시는 2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앤필드에서 리버풀과 2006~2007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맨유는 다음날인 5월3일 같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세리에A의 명문 AC밀란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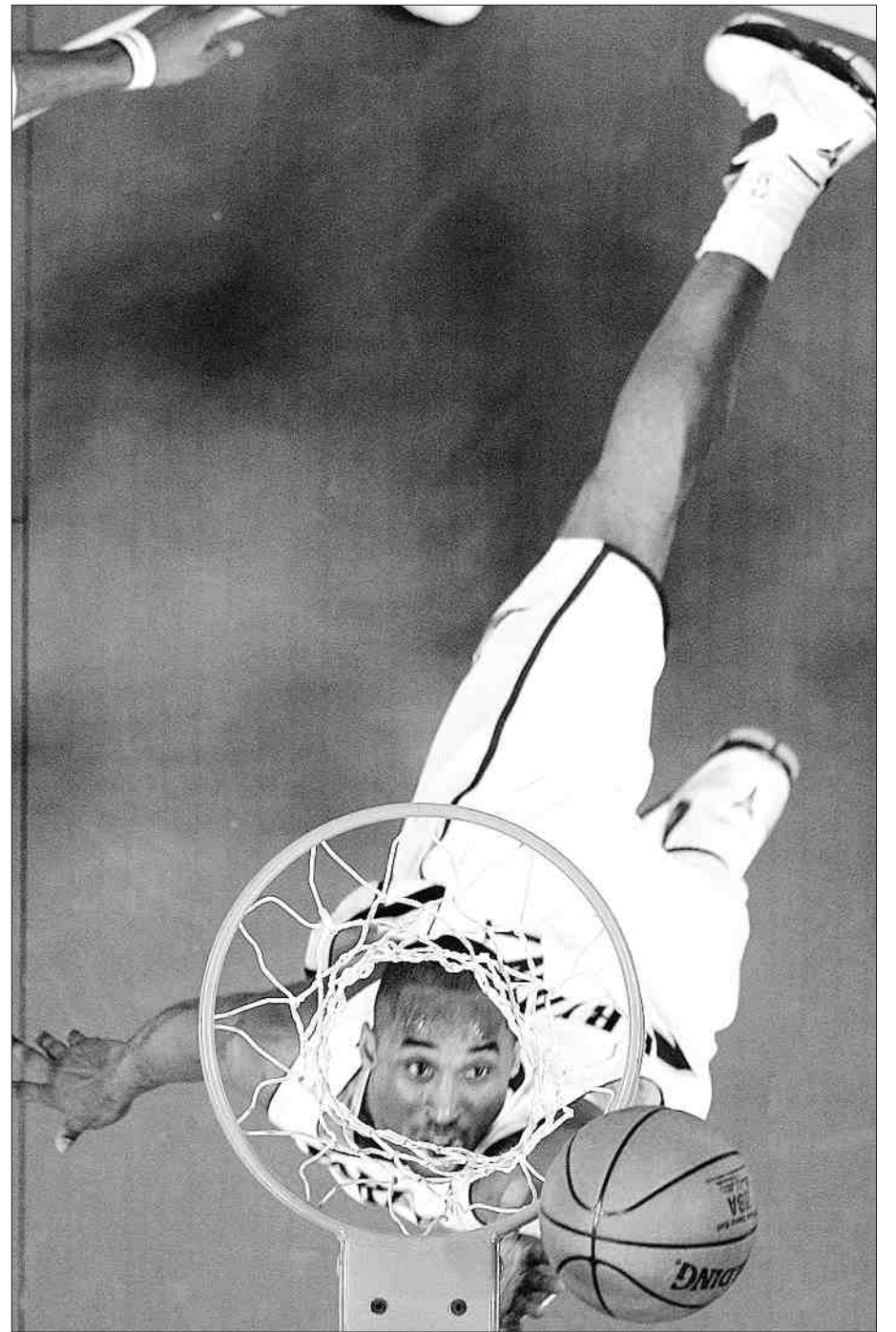
첼시와 맨유는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각각 1-0, 3-2로 승리해 이번 2차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결승 티켓을 손에 쥔다.

현재 첼시와 맨유는 FA컵 결승에 나란히 올라 있다. 3경기씩을 남겨 놓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두 맨유가 2위 첼시에 승점 5점 차로 앞서 있어 우승권은 맨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첼시로서는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첼시는 공·수의 핵인 미하엘 발라크와 히카르 두 카르발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원정경기에 뛸 수 없다는 것이 다소 걸린다.

맨유도 AC밀란과 1차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 터진 웨인 루니의 결승골로 짜릿한 재역전승(3-2 승)을 거뒀지만 안방에서 두 골이나 내줬다는 것은 부담이다.

비교도 되는 2차전에서 0-1이나 1-2로 패해 동물이 된다



코비의 얼굴은 확실히 골인데...

LA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피닉스 선스와의 2006~2007시즌 NBA 서부콘퍼런스 플레이오프(7전4선승제) 8강전에서 리버모드 볼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피닉스가 113-100으로 승리, 3승1패로 4강 진출에 1승만 남겼다.

/연합뉴스

맨유의 전설 로이킨 퍼거슨과 '사제대결'

선덜랜드 감독으로 1부리그 복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영원한 주장'으로 기억되는 로이 킨(36·선덜랜드 감독)이 마침내 스승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지략대결을 펼치게 됐다.

킨이 지휘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선덜랜드(승점 85)는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던 더비 카운티(승점 81)가 크리스털 팰리스 0-2로 패하면서 이번 시즌 남은 1경기에 상관없이 2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선덜랜드 지휘봉을 잡은 킨은 2005~2006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쫓겨나면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팀을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시키는 '마법'을 연출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킨은 1993년 노팅엄 포리스트에서 맨유로 옮겨온 뒤 1999년 데이비드 베컴 등과 함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을 휩쓸어 맨유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트레블(3관왕)'을 작성한 주축 멤버다.

그러나 킨은 2005년 11월 구단 방송국인 MUTV와 인터뷰에서 맨유의 젊은 선수들의 부진을 짜잡아 비난하는 독설로 파문을 일으킨 뒤 12월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으로 휴면히 이적했고, 이듬해 아쉬움을 남긴 채 은퇴했다.

하지만 킨은 지난해 8월 선덜랜드와 3년간 감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도자로 '깜짝' 변신했고, 마침내 이번 시즌 종료 1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26승7무12패(승점 85)를 기록, 버밍엄시티(승점86)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승격권이 주어지는 리그 2위를 확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농구 챔피언 '최후의 승부'

모비스-KTF 오늘 7차전

지난 해 10월19일 막을 올린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가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졌다.

1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7차전 결과에 따라 울산 모비스 혹은 부산 KTF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5월에 프로농구가 열리는 것은 출범 첫 해인 1997년 5월1일 챔피언결정전 5차전 이후 10년만이다.

정규리그 우승팀 모비스는 쫓기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얼마나 떨쳐내느냐가 가장 큰 숙제다. 3승1패로 앞서다 두 경기를 내리 잃어 베팅 끝에 내몰린 모비스는 특히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 4전 전패를 당한 기억까지 있어 우승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팀의 간판인 양동근이 29일 6차전 2쿼터부터 단 1점에 그치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마음에 걸린다.

KTF는 오름세다. 1승3패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 하다가 7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간 최초의 팀이 된 KTF는 내진 감에 적지에서 우승 잔치까지 벌일 태세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 모비스보다 3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게 분명하고 챔피언 내내 소금같은 활약을 해준 조성민이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도 약제다. 조성민은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 굿모닝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7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울 축구 유망주 '2용'

팬 설문조사 이청용-기성용 순



<이청용>

축구 팬들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피' 가운데 이청용(FC서울)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축구전문지 '베스트イレブン(www.besteleven.co.kr)'과 해외축구 전문사이트 '사커라인(www.soccerline.co.kr)'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축구 팬 1천9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3%(635명)가 귀네슈호의 '푸른 용' 이청용을 최고 유망주로 꼽았다.

이청용은 이번 시즌 13경기에 출전해 1골과 5도움을 올리며 FC서울의 초반 상승세를 주도했다.



<기성용>

두 번째로 꼽은 유망주로는 이청용의 팀 동료인 '광주출신' 기성용(FC서울)이 16.3%의 지지를 받았고, '변병주호' 대구FC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올림피아대표 팀 날개 이근호가 10.7%로 3위였다.

올림픽 예선에서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뽑아낸 한동원(성남)이 8.7%로 4위, 이번 시즌 드래프트 최대어로 수원에 입단한 장신 공격수 하태균이 7.6%로 5위였다.

6~10위에는 양동현(울산), 최철순(전북), 이승현(부산), 이현승(전북), 심영성(제주)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LB 역대 13번째 '홀로 삼중살'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의 유격수 트로이 톨러워츠키가 메이저리그 역대 13번째로 다른 야수진의 도움(보살)없이 혼자 삼중살을 완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톨러워츠키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벌어진 애플랜드 브레이브스와 홈경기에서 순식간에 홀로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는 민첩한 동작을 선보였다.

5-5로 맞선 7회 무사 1,2루에서 톨러워츠키는 애플랜드 간판 타자 치퍼 존스의 직선타를 잡은 뒤 곧바로 2루를 찍어 2아웃을 만들었고 2루로 향해 달려오던 1루 주자 에드거 렌테리아까지 태그해 삼중살을 연출했다. 그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태그 후 1루에 송구까지 해 '확인사살'까지 마쳤다.

존스의 볼카운트가 2-3인 상황에서 애플랜드 주자들은 벤치의 작전에 따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직선타가 되면서 이미 내달았던 발걸음을 돌리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톨러워츠키는 텅 빈 2루를 가볍게 발로 찍은 뒤 2루에 거의 내달은 렌테리아의 몸에 글러브를 댔다. '나홀로 삼중살'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유격수 라파엘 페라이 애플랜드 소속이던 지난 2003년 9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달성하는 등 역대 13번 기록됐다.

올해로 창단 13년째를 맞은 콜로라도에서는 2003년 4월 역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첫 삼중살을 기록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콜로라도는 11회 연장 끝에 9-7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보"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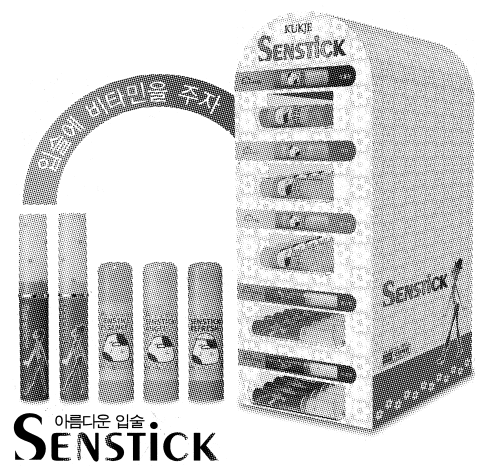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



"엄마" 사랑해요!